



지난 25일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린 제39회 전북도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송하진도지사가 지랑스런 전북인 상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 전북대도약!

전북도민의 날 행사 성료... 자랑스러운 전북인 시상 14개 시군 화합무대·분야별 도민대표 도민현장 낭독 천년 전라도의 자랑스러운 역사 다양한 공연으로 표현

제39주년 전라북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25일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도내 기관·사회단체장, 전북인대상 수상자, 출향도민, 시군 및 기업체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전북도 도민의 날은 도민의 참여 속에 한해의 풍년을 기뻐하고, 도민의 단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조례 제정 후 매년 10월 25일을 '도민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39주년 전북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천년 여간 전라북도가 한국사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왔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자랑스러운 역사적 역량과 멋스러운 창의 문화를 통해 세계로 응비하는 전라북도의 힘찬 기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행사는 식전공연 '빛의 교성곡'을 시작으로 전북인대상 시상, 14개 시군 화합무대와 도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전북대도약을 위한 다짐대회,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식전공연인 '빛의 교성곡'은 "갑오년의 햇빛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촛불은 타오르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우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갑오농민혁명의 정신이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집회 등을 거쳐 발전되어 오날날에 이를 수 있도록 헌신해 온 많은 전북인들의 의로운 정신을 기리는 무대로 준비되었다. 이어서, 우리 도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4개 분야의 수상자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후, 민선7기의 성과를 도민과 함

께 공유한데 이어 희망찬 도정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14개 시군 화합무대와 전북대도약 다짐대회가 14개 주민대표와 분야별 도민대표의 도민현장 낭독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열린 전북 대도와 다짐대회는 천년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역량과 도민의 단합된 마음을 결집해 전북 대도약을 열어나가기 위한 송하진 지사의 대도와 다짐과 함께 임진왜란 시 국난에서 나라를 지켜낸 전라북도의 기상을 표현한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약무호남 시무곡'가 퍼포먼스가 이어져 참여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대도약 다짐문을 통해 "민선6기를 통해 성숙해진 전라북도 발전역량을 도민과 함께 결집하여 전라북도 천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웅성하는 천년의 새 역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39주년 전라북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도내 14개 시군의 이름 다움을 표현하고, 도민 화합과 소통의 바탕을 담은 '전북 유람가' 합창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진성 기자

정읍~김제~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신설

1월 7회... 교통편의 증진 기대 정읍~김제~인천공항간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되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된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경로는 정읍에서 (정읍IC·호남고속도) 김제를 경유하여 (서김제IC·고속도(서해안·평택·시흥·영

동·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공항신도시(IC)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지난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정읍~김제~인천공항간 시외버스 노선을 최종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각 해당 시도에 공식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운송업체는 경기고속 2회, 전북고속 2회, 호남고속 2회, 대한고속 1회 등 4개 업체가 1월 7회 왕복 운행할 예정으로, 운행시간과 요금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4개 버스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창군, 정읍시, 혁신도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간 직통노선이 폐지되어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교통불편을 감수해 왔다. /김진성 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장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용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학장(강정원)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회원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문화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텍시양복점 건물)
(H·P: 010-2078-4810)

스피치. 면접. 시낭송. 웃음치료 (1,2월 방학특강)

44년의 전통과 경험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지도하는 강사진으로 구성된 스피치, 면접, 연설, 웅변, 웃음치료 등을 지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바랍니다. 스피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과	성인반, 주말반, 개인지도반
정	중, 고등반, 초등, 유치반(차량운행)
구	취업면접반(개인지도)
분	회장 인사말, 선거연설 개인지도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면접 담당교수 역임
· 전북대, 우석대, 전주교육대, 군산대 과학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전북 최초 스피치1호 지도자
· 기관, 단체특강 600여회
· KBS TV, MBC TV, JTV 출연자

◎ 대학 평생교육원(지역별 2020년 1학기 모집도 합니다)
전주, 완주, 진안(전주에서)
남원, 장수, 순창지역(남원에서)
군산, 부안지역(군산에서)
김제, 완주지역(전주에서)
익산지역(익산에서)
정읍, 고창지역(정읍에서)

(사)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부설)
(사) 한국스피치, 용변협회 전북지부 (부설)
한국스피치·면접·시낭송 아카데미

위치 : 금암동 백제직업전문학교 옆 삼거리 5층
전화 : (063) 285-6676, 231-6669 (주, 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

전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 유공교사 표창 수여

전북도는 지난 26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보육이 웃는 전북, 아이가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2,000여명이 참여하는 '제18회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온 보육교사를 격려하고 보육교직원들의 리더십과 인성교육에 대한 경력을 상호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내 보육교사의 도지사 등 유공 표창 수여와 안전결의문을 선사하는 1부에 이어 화합의 한마당 문화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의 2부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 남궁진 회장은 "보육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매일 긴장의 시간이며, 고된 근무여건이다. 묵묵히 헌신해주시는 보육교직원에게 감사드리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전자출결시스템 등의 보육시스템을 적극 반영하여 더

욱 알차고 활기찬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아이들과 보육교사의 인원이 모두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집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이가 행복하고 보육교사가 즐거운 전라북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떠오르는 행정 견학 1번지로 '각광'

전북도청사, 최근 4년간 8천여명 방문... 눈높이에 맞춘 탄소전시관 주목

전북도청사가 행정 견학 1번지로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10월말 기준) 견학신청을 통해 전북도청사를 찾은 방문객은 1,95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4월 홍보영상관 개관 이후 2016년 1,200명, 2017년 2,100명, 2018년 2,300명이 다녀갔으며 올해 12월 말까지는 지난해 방문객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람객 유형은 10월 말 신청기준 86.8%가 학생으로 전북도청사가 도내 초·중·고등학교 현장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30일에도 전주 문화초등학교 140여명의 도청견학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국제행사 유치 등 전라북도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으로 외국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아 도청 견학으로 도청청사 전시관이 국제교류의 장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주한 유럽연합 미하일 라이더러 대사 등 관계자들이 전북도를 방문해 전시관을 둘러보고 지난 9월에는 전라북도 청소년 교류 사업 일환으로 중국 윈난성 초·중·고 학생들이 도청사를 방문해 새만금 세계캠버리, 탄소산업 등 주제별 전시관을 둘러보며 전북을 배우기도 했다. 현재 도청견학은 1회 30명 이하로 사전예약을 받아 1시간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홍보 영상관에서 도청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도청 및 청사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받은 후, 탄소산업, 새만금캠버리대회 등 5~6개의 도청핵심사업 전시관을 방문하는 코스로 짜여져 있다. 새만금세계캠버리전시관의 경우 대형형트와 캠핑용품, 디지털 즉석사진 촬영 및 인화기 등 딱딱하지 않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조성돼 있어 소통적 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방문에 이어 정부의 탄소산업 육성계획이 발표되는 등 전북 탄소산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도민 눈높이에 맞춘 전북도청사 탄소융합전시관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형열 도 홍보기획과장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때 정책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 공간 조성 및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청사를 방문해 도정을 친밀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도청견학 수요와 대형국제행사를 앞두고 대내·외 내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도청홍보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만전

전북도는 지난달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를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울거울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전대비 기간에 피해우려지역과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시설대응을 위한 자재와 장비 확보는 물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사전대비기간 추진하는 주요내용은 현장 밀착형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험강설 맞춤형 기상청 문자와 CC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정확한 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주택, 시장 비가림시설, 가설 건물 등 붕괴위험설류,

산악마을 고립지역, 해안가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과 시설을 조사하여 위험요인은 사전 제거하고 담당공무원 및 이·통장 등을 복수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폭설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제설장비·인력을 사전확보하고, 도로등급별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관리기관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여 제설취약구간 3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12월이정에 설치하여 제설차량 이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그밖에 한파에 대비해서도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재난도우미와 매칭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에 대비

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와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동안 시군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토록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9. 11. 15~2020. 03. 15.)까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도 감승구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폭설 및 한파뿐만 아니라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평소 세심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폭설시 내집 앞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